

감초(甘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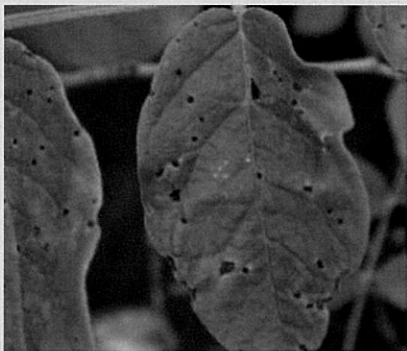
장미목 콩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이다.
약용으로 재배하며,
대체로 뿌리를 건조시켜 사용한다.
해독(解毒), 진통(鎮痛)의 효능이 탁월하다.

안태진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인삼특작부 약용작물과



갈색점무늬병 피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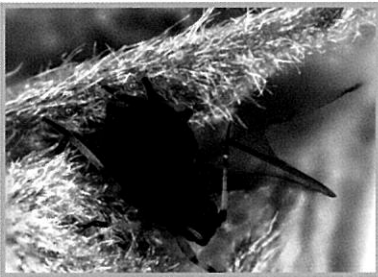


감초에 가장 많은 피해를 주는 병해로 5월 상순에 더위지기 시작하면서 발생되어 장마기 후기인 7월~8월까지 성엽과 줄기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새로 나는 잎을 따라 계속 감염된다. 발생이 심해지면 병반이 커지고 합쳐져서 찢어지게 되고 파충체벌레 피해가 함께 발생하면 잎이 정상적으로 커지지 못하고 오그라들게 된다.

감초에 등록된 적용약제를 이용하여 초기에 방제하여 병의 확산을 막도록 한다.

응애류 피해 ●●●

보통 응애류는 식물체의 잎 뒷면에서 흡즙하지만 감초에 발생하는 점박이응애, 차면지응애 같은 경우에는 잎 앞면에 까지 발생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다년근을 수확하는 감초의 특성상 파종 및 포복경 정식 후 당해 년도에는 큰 피해가 없으나 2년생 이상의 다년근을 재배시에 해마다 발생 밀도가 증가되어 큰 피해를 준다. 병징은 초기에는 흰색의 작은 반점이 생기고 점차 황색으로 변하면서 잎 전체가 말라 죽는다. 발생이 가장 심한때는 여름철 고온건조한 시기이며 초기 발생시 등록된 적용약제를 살포하여 방제토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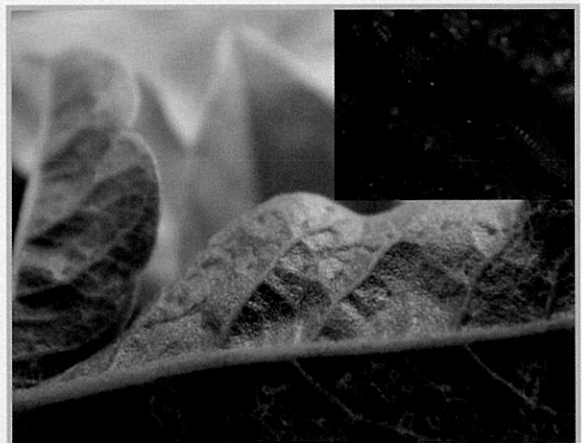


아카시아진딧물 피해 ●●●

팥, 강낭콩, 완두 등 콩과 식물에 많이 발생하는 진딧물로서, 약용작물에서는 감초, 황기 등에 발생한다. 어린 줄기와 꼬투리에 무리를 이루어 수액을 빨아먹기 때문에 식물체의 발육이 잘 되지 않고, 진딧물이 배설한 감로 때문에 지저분해진다. 연 10세대 이상 발생하며 번식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등록된 적용약제로 발생초기 조기 방제 하도록 한다.

총채벌레 피해 ●●●

과, 양파 등 노지재배 작물과 오이, 토마토 등 시설원예작물에 발생이 많은 총채벌레는 약용작물에서는 감초, 맥문동 더덕, 도라지, 삼주 등 작물에 발생하며 약충과 성충이 즙액을 빨아먹으면 피해부분이 지저분하게 황백색으로 변하고, 발생량이 많으면 작물전체가 말라죽는다. 봄철 기름 시에 번식이 왕성하고 피해가 심해지는데 아직까지 등록된 적용약제가 없는 실정이다. ㉞



● 바로잡습니다.

생활과 농약 10월호, 약용작물 병해충 도감 ⑧ 중 39쪽 '응애류' 피해사진과 '흰가루병' 사진이 바뀌었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